

# “정해진 길을 택하지 않은 여러분이 인류의 희망”

## GIST, 2024년 하반기 학위수여식 개최

- 16일(금) 총 170명(박사 54명, 석사 63명, 학사 53명)에게 학위 수여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총 8,348명 배출... 박사 졸업생 SCI급 저널에 평균 5.6편 논문 게재
-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축사 통해 “개인적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 임기철 총장 “인류의 난제를 풀어낼 혁신이 가능하다면 아직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졸업생 여러분이 그 첫 번째 희망이 될 것”



▲ GIST가 16일(금) 2024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6일(금) 오후 2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IST는 이날 박사 54명을 비롯해 석사 63명, 학사 53명 등 17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로써 1993년 설립 이래 GIST는 30년간 박사 1,945명, 석사 5,086명, 학사 1,317명 등 총 8,348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했다.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54명은 재학 기간 중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술지에 1인당 평균 5.6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날 미래인재상과 준최우등상을 수상한 기계공학부 학사과정 졸업생 안해원 씨, 공로상과 우등상을 수상한 화학과 학사과정 졸업생 이혜인 씨는 2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축사자로는 기계공학부(지도교수 박기환)에서 석사를 마치고 2016년 박사과정 재학 중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전문기업 ‘(주)에스오에스랩’을 창업한 정지성 대표가 단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주)에스오에스랩은 지난해 매출증가율 75%, 고용증가율 9%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 성과를 알리기보다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문을 연 정지성 대표는 “첫 라이다 제품을 개발하던 창업 초기, 10억 원 정도 자금을 모아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 보니 500억에서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경쟁사들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신과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자칫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른 GIST라는 우물은 세상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우물 중 하나”라며 “여러분의 잠재력은 크다”고 강조하고,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AI 문명 대전환을 맞이한 오늘날 국가의 혁신 역량이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과학기술원을 졸업하는 여러분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막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러분은 조립 설명서대로 만들어지는 기성품처럼 미리 정해진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면서 “인류의 난제를 풀어낼 혁신이 가능하다면 졸업생 여러분이 그 첫 번째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총장은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매듭을 짓는 오늘, 매듭을 짓기 시작했던 맨 처음을 다시 떠올려 보고 ‘맨 처음’이 간직한 순수한 열정을 되새기며 내일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매듭을 지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기철 총장이 학위수여식 식사를 하고 있다.

한편 GIST는 美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한 국제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국내 교육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세계 상위 500위 내에 드는 슈퍼컴퓨터(‘TOP500’ 등재 ‘Dream-AI’)를 운용 중인 GIST는 2019년 개원한 AI대학원에 이어 올해 9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AI정책전략대학원과 함께,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AI영재 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작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은 ‘젊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25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 세계 4위(17년 연속 국내 1위)에 오르는 한편 ‘2023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는 창업성과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GIST는 세계 정상급 R&D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